

현안과 과제

■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 체감중산층의 삶만족도, 체감저소득층보다 27%p 높다.

□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 체감중산층의 삶만족도 체감저소득층보다 27%p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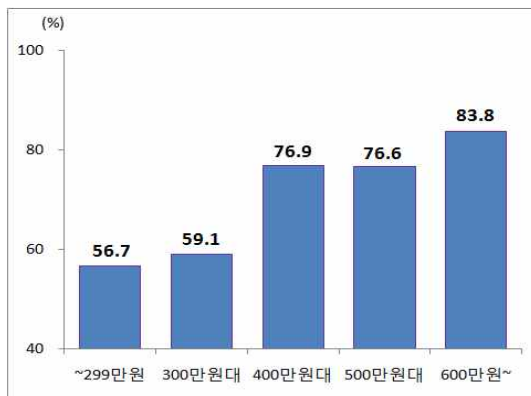
■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지금까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으나,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중산층이라는 계층의식은 자신을 사회의 주된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과 계층의식을 함께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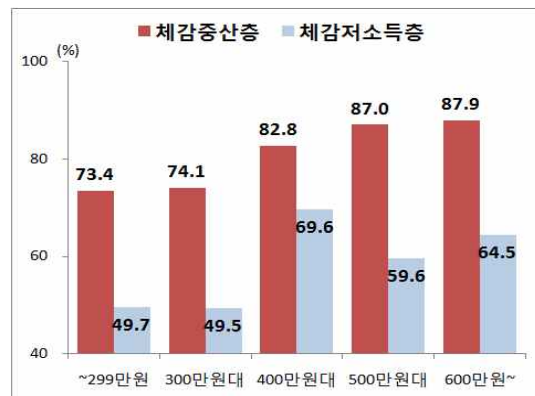
■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첫째, 가구소득과 순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월평균 세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83.8%에 달하는 반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 56.7%로 떨어졌다. 둘째,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의 경우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2.3%에 달하는 반면, 체감저소득층은 55.5%에 불과하다. 셋째, 같은 소득·자산 수준이라 하더라도 계층의식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월평균 세후소득이 500만 원대인 경우 체감중산층과 체감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각각 87.0%, 59.6%로 27.4%p나 차이가 났고, 여타 소득구간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넷째, 여성과 저연령층, 고학력자, 안정적 일자리 보유자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소득별 삶만족도>



<체감계층별/소득별 삶만족도>



■ 시사점

첫째, 국민들의 소득과 자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을 높여 스스로가 중산층이라는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봉사 활동과 기부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와 타인을 위한 봉사가 곧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넷째, 일자리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1. 개요

○ (연구배경)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으나,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

- 선행연구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은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며, OECD(2013a, 2013b)¹⁾가 이를 집대성

- OECD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변수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나이, 성별 등), 물질적 요인(소득, 자산 등), 삶의 질적 요인(고용, 건강, 교육 등), 정신적인 요인(인성 등) 등이 있음

-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 또한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 중산층 이상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자신을 사회 속에서 주된 구성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소외,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음
- 201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상층·중층·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삶을 만족하는 비율은 각각 77.9%, 44.8%, 17.0%로 큰 격차를 보임²⁾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2014)에서도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은 삶의 만족도가 82.3%에 달하는 반면 '체감저소득층'은 55.5%에 불과

○ (연구목적) 계층의식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변수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OECD 및 선행연구가 제시한 주요 변수들에 계층의식을 추가

- 계층의식 : 체감중산층, 체감저소득층

1) OECD(2013a),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 OECD(2013b),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2) 삶의 주관적 만족감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만족',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을 설문조사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

- 인구학적 요인 : 나이, 성별
- 물질적 요인 : 소득, 순자산
- 삶의 질적 요인 : 교육수준, 일자리 안정성
- 정신적인 요인 : 기부, 봉사활동

○ (연구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적 분석을 실시

- 설문조사 개요 : 전국 성인 남녀 817명을 대상으로 중산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보았음
 - 표본추출 :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중을 고려³⁾
 - 조사 기간은 2014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며, 유선전화 설문으로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43%p임
-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 각 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기술적 분석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고려할 때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요 연구>

연구기관	주요변수	주요결과
OECD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등) - 물질적 요인(소득, 자산 등) - 삶의 질적 요인(고용, 건강, 교육 등) - 정신적 요인(인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삶의 만족도 지수는 6점(10점 만점)으로 OECD 36개국 중 25위 - 여성의 삶의 만족도(6.2점)가 남성(5.8점)에 비해 다소 높음
현대경제연구원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의식(체감중산층, 체감저소득층) - 물질적 요인(소득, 순자산) -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 삶의 질적 요인(일자리안정, 교육수준) - 정신적 요인(기부,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소득/순자산 수준이라도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삶의 만족도 훨씬 높음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3) 자세한 응답자 특성은 별첨 참조.

2.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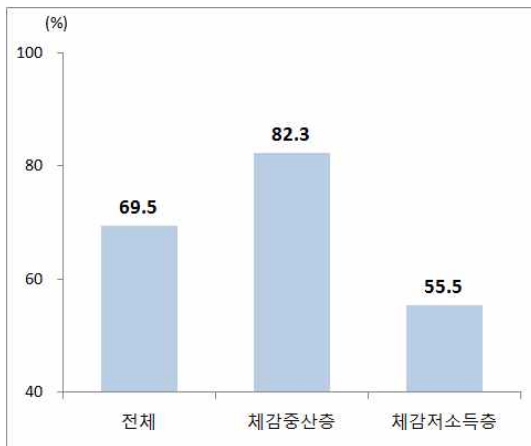
○ (계층의식)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음

- 전체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는 본인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층의식 :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의 경우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2.3%에 달함
 - 반면 본인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체감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5.5%로 체감중산층보다 26.8%p나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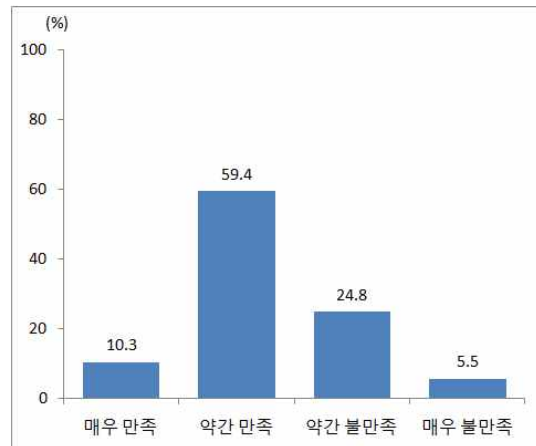
※ ‘체감중산층’이란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기초로 스스로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의미4)

-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귀택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중산층’이라 응답한 사람
- 한편 ‘저소득층’이라 응답한 사람을 ‘체감저소득층’이라고 정의

<체감계층별 삶만족도>



<삶만족도 응답분포>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4) 한편 OECD와 한국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중산층(OECD기준 중산층)이란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frac{\text{가처분소득}}{\sqrt{\text{가구원수}}}$)이 중위값의 50~150%인 경우.

○ (물질적 요인) 소득·순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나, 같은 소득·순자산 수준이라 하더라도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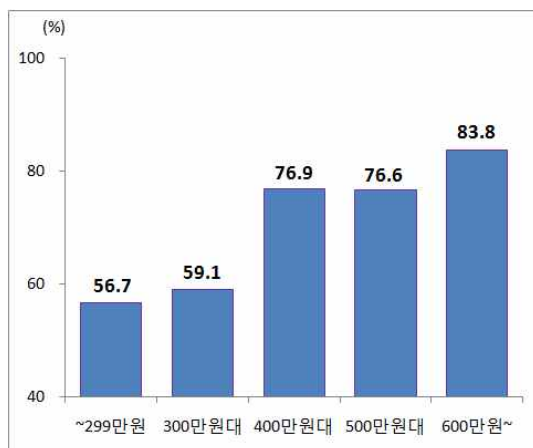
- 소득, 순자산 등 물질적 요인은 생활수준을 높이고 소비를 가능함에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생활수준을 높이고 소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물질적 요인으로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이 고려될 수 있으며, 임금, 자본소득, 투자소득, 정부이전소득 등 소득의 원천 측면의 각 소득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Stiglitz, Sen and Fitoussi(2009)에 따르면, 개인소득보다는 가구소득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함

- 소득, 순자산 등 물질적 요인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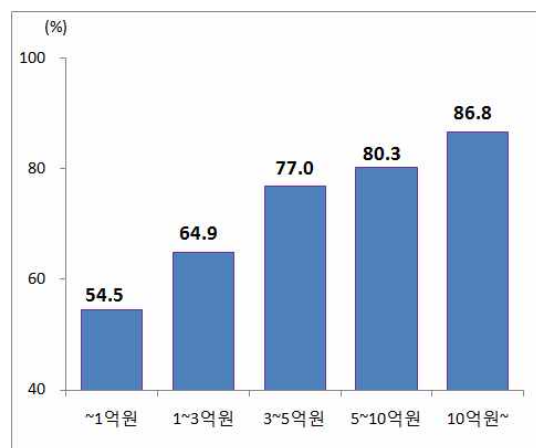
- 월평균 세후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삶의 만족도는 83.8%로 300만 원 미만인 경우인 56.7%보다 27.1%p 높음
- 가구의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삶의 만족도는 86.8%로 1억 원 미만인 경우인 54.5%보다 32.3%p 높음
- 가구의 월평균 세후소득이 5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삶의 만족도 증가세가 둔화되나 순자산의 경우 소득과는 달리 삶의 만족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소득별 삶만족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월평균 세후 가구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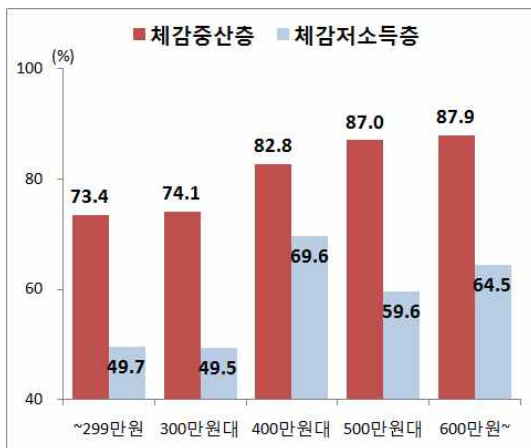
<순자산별 삶만족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가구의 순자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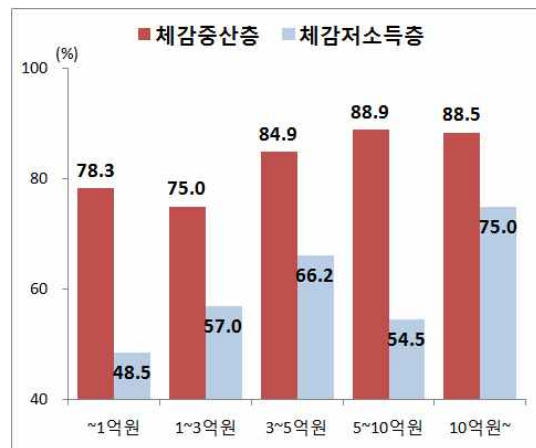
- 소득별 : 같은 소득구간이라 하더라도 체감중산층과 체감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한 격차를 보임
 - 월평균 세후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체감중산층의 삶의 만족도는 73.4%로 체감저소득층의 49.7%보다 23.7%p 높음
 - 6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감중산층의 삶의 만족도는 87.9%로 체감저소득층의 64.5%보다 23.4%p 높음
 - 여타 구간에서도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약 20%p 가량 더 높음
- 순자산별 : 같은 순자산 수준이라 하더라도 계층의식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크게 차이
 - 가구의 순자산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체감중산층의 삶의 만족도는 78.3%로 체감저소득층의 48.5%보다 29.8%p 높음
 - 10억 원 이상인 경우, 체감중산층의 삶의 만족도는 88.5%로 체감저소득층의 75.0%보다 13.5%p 높음
 - 여타 구간에서도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약 20%p 가량 더 높음

<체감계층별/소득별 삶만족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월평균 세후 가구소득 기준.

<체감계층별/순자산별 삶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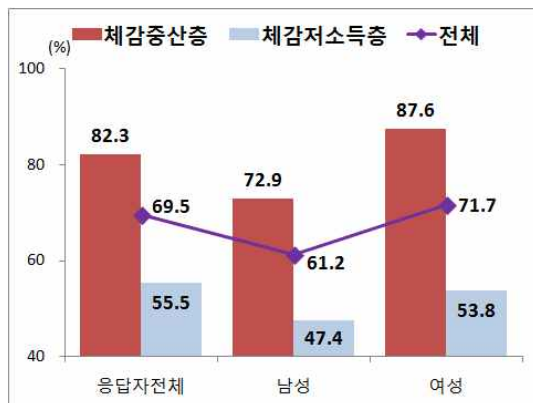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가구의 순자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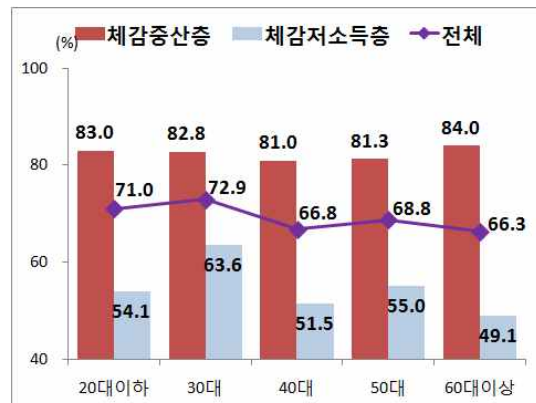
○ (인구학적 요인) 같은 성별, 연령대라 하더라도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음

-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별, 만족감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Boarini et al(2012)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 중에서 성별 격차를 만드는 요인은 고용과 건강 상태로,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삶의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도록 만드는 요인
 - Clark(2007) 등 여러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와 나이와의 관계는 U형태의 관계를 가져, 나이가 중년으로 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⁵⁾
- 성별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성별과 관계없이 체감중산층과 체감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한 격차를 보임
 - 여성의 경우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 보다 삶의 만족도가 33.8%p, 남성의 경우 25.5%p 높음
- 연령별 :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고, 고령층의 경우 계층의식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 격차가 큰 경향을 보임
 -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같은 연령 수준이라 하더라도 계층의식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크게 차이
 - 모든 연령대에서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특히 60대 이상 연령에서 큰 격차를 보임

<체감계층별/성별 삶만족도>



<체감계층별/연령별 삶만족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5) 그러나 Ree and Alessie(2011)은 은퇴시점에는 중년보다 자산이 더 적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와 나이에는 음의 상관관계 혹은 평평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 (삶의 질적 요인) 교육수준이 높고 일자리가 안정적일수록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교육수준, 고용 안정성 등 삶의 질적 요인은 안정적인 생활, 직업 및 자아성취감 등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Blanchflower and Oswald(2011)는 교육과 기술이 높을수록 삶의 성취감과 경제적 능력을 높여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설명
- Winkelmann and Winkelmann(1998)은 실업 등 고용의 불안정성이 삶의 만족도에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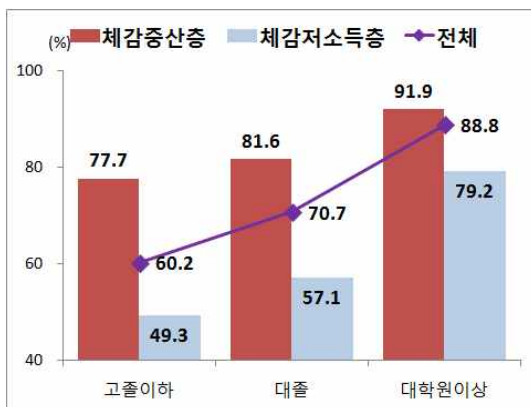
- 교육수준별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나, 같은 교육수준 내에서도 체감중산층과 체감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한 격차를 보임

-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에 만족하는 비율도 상승하고, 대학원이상의 교육을 받는 경우 삶을 만족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짐
- 모든 교육수준에서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특히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 경우 가장 큰 격차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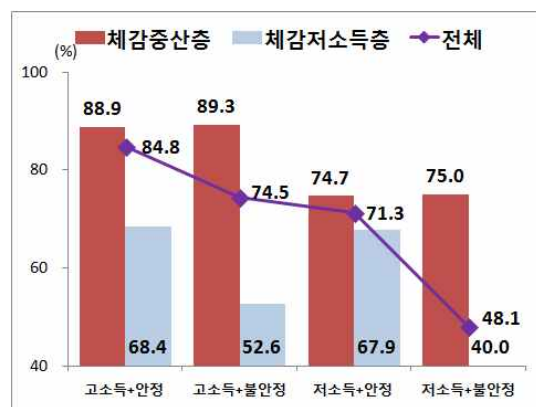
- 고용 안정성별 : 일자리요인이 고소득이고 안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나, 같은 일자리특성 내에서도 체감중산층과 체감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한 격차를 보임

- 일자리 특성이 고소득, 안정적일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모든 고용 관련 분류에서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특히 일자리가 불안정할 경우 큰 격차를 보임

<체감계층별/교육수준별 삶만족도>



<체감계층별/일자리특성별 삶만족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정신적 요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음

- 기부, 봉사활동 등의 활동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및 만족감 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 Rietschlin(1998) 등에 따르면 봉사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한 감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특히 Anik et el(2010)의 연구에서는 자기 본위적 기부행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밝힘

- 기부참여별 : 기부를 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기부여부와 관련 없이 체감중산층과 체감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임

· 기부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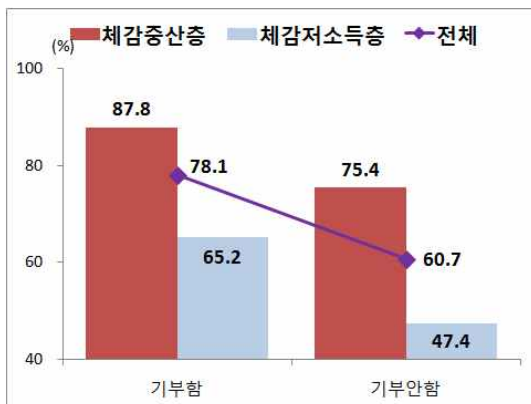
· 기부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약 30%p 가량 더 높음

- 봉사활동 여부별 : 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가 높고, 체감중산층과 체감저소득층 사이에 삶의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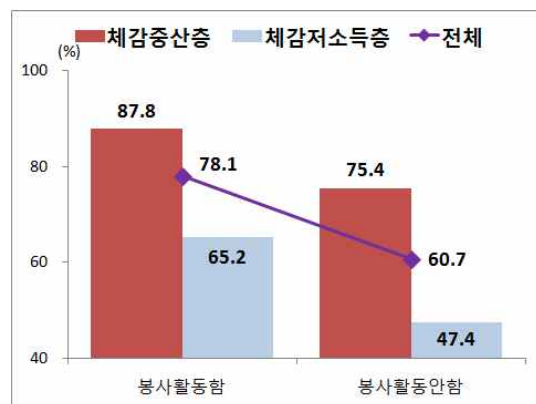
·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음

· 봉사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약 30%p 가량 더 높음

<체감계층별/기부참여별 삶만족도>



<체감계층별/봉사활동별 삶만족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3. 시사점

-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체감중산층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불안정성 완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등도 중요
 - 국민들의 소득과 자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을 높여 스스로가 중산층이라는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
 - OECD기준 중산층 중 본인을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55%(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2013))를 차지하고 있어 스스로가 중산층이라는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방안 필요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 출산·육아 서비스 지원 및 공교육 강화를 통한 보육비·사교육비 부담 완화
 - 가족, 동호인 등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스포츠 등의 인프라 구축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후원 및 무료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식 배양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봉사 활동과 기부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 약자와 타인을 위한 봉사가 곧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민의식 배양
 - 일자리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
 - 비정규직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비정

규직 종사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 필요

- 고령층 혹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실업급여 및 최저생계비보장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하고 저소득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상향 조정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경제연구본부 오준범 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

경제연구본부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참고문헌>

- 김병조(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제34집 (여름호), pp. 241~268.
- 조동기(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제 29권 제3호, pp. 89~109.
- Anik et al(2010)., “Feeling Good about Giving: The Benefits (and Costs) of Self-Interested Charitable Behavior”,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 Blanchflower and Oswald(2011)., “International Happiness: A New View on the Measure of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pp.6-22.
- Gilman and Huebner.,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 18, No. 2, pp. 192 - 205.
- Jung et al(2010)., “Factor Related to Perceive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in South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OECD(2013a),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 OECD(2013b),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 Ree and Alessie(2011), "Life satisfaction and age: Dealing with under identification in age-period-cohort model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ume 73, Issue 1, pp 177~182.
- Thoits and Hewitt(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42, pp115 - 131.

<참조1> 응답자 요인

(%)

응답자 특성		비중	응답자 특성		비중	
전체	817명	100.0				
성별	남성	50.6	소득 수준별	~299만원	26.3	
	여성	49.4		300만원대	18.8	
연령별	20대 이하	21.5		400만원대	19.1	
	30대	25.3		500만원대	15.2	
	40대	25.1		600만원 이상	19.6	
	50대	15.3		자산 규모별	1억 미만	15.1
	60대 이상	12.7			1~3억미만	33.2
학력별	고졸 이하	30.1			3~5억미만	18.6
	대졸	58.9			5~10억미만	16.2
	대학원졸 이상	10.9		10억이상	8.3	
지역별	서울	20.2	생활비 수준별	~199만원	29.1	
	6개 광역시	24.2		200만원대	28.5	
	9개 광역도	55.6		300만원대	22.9	
가구주 직업별	정규직	57.3		400만원 이상	16.5	
	비정규직	9.7	가계 수지	흑자가구	61.8	
	자영업자	25.3		적자가구	12.2	
	기타	7.7		균형가구	25.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